

노인가정의 재무관리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김 경 자

목 차

- I. 서론 : 재무관리의 필요성
- II.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경제적 특징
- III. 재무목표와 재무계획
 - 1. 재무목표와 필요금액 산정
 - 2. 필요자금 조달
- IV. 자산운용 전략
- V. 결 론
- 참고문헌

I. 서론: 재무관리의 필요성

흔히 노년기에 공통되는 생활목표를 건강(medicine), 여유 있는 마음(mind), 경제적 여유 (money)의 3M으로 표현한다. 노년기에 경제적 자원이 불충분하면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연결되기 쉽다. 반면 충분한 경제적 자원의 보유는 노인의 독립성을 증가시키고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인들의 희망 중 중요한 한 가지가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근래 들어 자녀세대와는 별도로 노인가정의 독립적인 재무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사회인구학적 변화가 노인인구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개념이 퇴색해가고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자식농사가 곧 노후대책이었기 때문에 노후

를 위한 개인적인 준비나 사회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의 보조보다는 자신의 저축으로 우선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저축추진 중앙위원회의 자료(1996)에 의하면 1996년 현재 60세 이상 노령자 중 장남과 함께 사는 행복한 부모는 20%,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편안한 부모는 25% 정도이다. 즉 나머지 55% 정도의 노인들은 노부부끼리 또는 노인 단독으로 살면서 자신의 생활을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용기간의 단축도 노인인구의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960년 2.9%에서 1990년 5.0%로 늘었고 2000년에는 6.8%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15세에서 59세 사이의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있는 추세이므로 생산연령인구 1인당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인 피부양률이 2000년에는 거의 10%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지영숙, 1998). 피부양률이 증가하면 노인인구에 대한 혜택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게 되므로 노인 각자가 자신의 생활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게 된다.

또한 산업체제의 변화로 정년제가 도입되고 경제위기와 더불어 연봉제 여파가 더욱 확산되면서 노후의 주수입원이던 퇴직금이 사라져 가는 것도 스스로의 노후대책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고 올해 4월부터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기는 했으나 기존 노인들 중 각종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1998)에 따르면 노령연금 등 각종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가입자는 1998년 현재 2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혜자 증가로 국민 1인당 지급액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 외에 의료보호나 주택보조 등의 사회보장제도도 제대로 개발이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들이 노인가정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더 크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 우리 나라 노인가계의 경제적 특징

통계청(1996)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 근로자 가계의 가계소득은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50대에 정점에 이르고 60대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1996년의 연간소득이 1320만원 정도로 총평균소득의 65% 정도이다.

총저축과 순저축 보유액도 가계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구주 연령과 함께 계속 증가하여 50대에서 가장 높았다가 60대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노인가구의 소비지출구조도 기타가계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94년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에 의하면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보다 보건의료비에서 상대적으로

표1. 근로자가계의 가구주 연령별 연평균 가계소득(단위: 만원)

연도	총평균	30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91	1443	1141	1389	1592	1681	1160
1996	2577	2003	2567	2792	2940	2028

더 많이 지출하고 있고 피복신발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에서 덜 지출하고 있다. 특히 비노인가계와 비교해 볼 때 외식비 및 개인교통비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표2.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 구조 비교(1994) (단위:%)

자료: 이기춘 외(1998).

지출비목	노인가계(A)	비노인가계(B)	A/B
식료품비	330,924	335,662	.986
주거비	34,158	43,303	.789
광열수도비	43,745	46,222	.946
가구가사용품비	40,856	56,393	.724
피복신발비	70,467	89,567	.787
보건의료비	66,225	55,660	1.190
교육교양오락비	85,874	166,493	.516
교통통신비	56,446	131,442	.429
기타 소비지출	205,115	214,403	.957

한편 노윤주, 이연숙(1997)의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가족생활 주기별로 소비지출을 살펴본 결과 노년기 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해 교육비와 교양오락비, 주거비, 외식비 등이 감소하는 대신 보건의료비와 잡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잡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것은 가족 및 친지들의 각종 의례(회갑과 칠순, 자녀결혼, 상례)와 관련된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노인가정에서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건의료비이다. 노인가정의 의료비지출구조를 분석한 연구(심영, 1997)에 의하면 조사대상 중 60세 이상 노인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783,600원인데 그 소득의 16.7%에 해당하는 131,000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 있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전체평균 진료비의 2.7배에 달하고 5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지출한 의료기관 고객 중 23%가 60세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정 중 일부는 아직 자녀의 교육과 결혼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노인가정의 1/5 정도가 미혼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부 노인가정은 은퇴한 후에도 자녀결혼을 위한 목돈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면 우리 나라 노인가정의 재무계획을 세울 때는 감소된 소득과 그 동안 모아둔 저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아직 성혼하지 않은 자녀를 위한 비용, 불시에 필요하게 될 의료비, 그리고 여생을 즐기기 위한 취미 생활비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III. 재무목표와 재무계획

1. 재무목표와 필요금액 산정

노후의 필요자금은 은퇴 후 기대하는 생활수준, 거주지역 등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노인가정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1) 기본적인 생활자금: 노부부 생활비 + 남편사망 후 부인 생활비
노부부 생활비 = 월 생활비 * 12개월 * 정년 후의 평균 기대여명
부인생활비 = 월 생활비 * 12개월 * 남편 사망 후의 평균 기대여명

- 2) 의료비 및 긴급예비자금
본인의 건강유지 및 예방과 치료를 위한 비용
가족, 친척의 질병, 사망에 따른 부대비용

불의의 사고시 불시의 지출자금(3-6개월 분의 생활비 정도에 해당하는 자금)

3) 자녀교육과 결혼을 위한 자금(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4) 특별활동 및 여가를 위한 자금

각종 경조사비

교제와 취미활동(여행 등)을 위한 비용

5) 상속을 위한 자금

따라서 연간 필요한 최소금액은 (생활비 12개월 분 + 긴급예비자금(생활비 3개월 분) + 특별/여가자금)을 포함해야 한다. 이 외에 각 항목의 필요금액은 개인이 원하는 재무목표의 종류와 수준, 그리고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참고로 지난 18년간 저축추진 중앙위원회(1996)에서 3년 주기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원하는 노후생활자금은 현재 자기소득의 50-5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액수는 직업과 거주지역, 그리고 현재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데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현재소득에 대한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의 비율이 낮다. 반면 전문가들은 현재소득의 60-70% 정도를 준비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1994)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필요자금을 산정한 결과를 참고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3회 경험생명표에 의하면 현재 60세 남자의 여명은 15년이고 아내의 여명은 24년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노후의 생활비는 부부동거시 퇴직 전 생활비의 50.8%, 남편사별 후 부인혼자 생활시 퇴직 전 생활비의 35%로 나타났다. 남편과 사별한 후 아내가 홀로 살아가야 할 기간은 평균 9년 정도이다.

* 부부동거시 월 필요액: 월소득의 50.8%인 79만원

* 아내의 독신생활시 월 필요액: 월소득의 35%인 54만원

* 총 필요자금 = (79만원*12개월*15년)+(54만원*12개월*9년) = 2억 52만원

이로 미루어 평균적인 가계의 경우 바람직하기로는 정년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포함해 3억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확보해 두어야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민일보, 1999). 그러나 적절한 자산관리를 할 경우 2억원 정도

만 있어도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2. 필요자금 조달

노후생활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은 대부분의 노인가정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필요자금을 마련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낮아져 자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하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연금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노년기 가정에 가용한 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저축 및 이자소득
- 2) 연금 및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타 연금, 보험, 퇴직금
- 3) 각종 부동산 임대료: 주택과 토지, 상가 등
- 4) 자녀들의 보조
- 5) 사회보조, 기타

1994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의 수입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남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50% 정도였고 차남 이하 또는 딸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비율이 30% 정도였으며 자신이 일하여 버는 수입을 가진 사람은 40%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세를 받거나 연금 또는 퇴직금 등을 가지고 혜택을 받는 경우는 거의 10% 미만이었다. 아직도 노후의 생활비를 자녀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중년기 가계를 대상으로 노후대비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정기적금 등 일반저축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해 각종 보험이나 연금, 부동산 투자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20-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정, 1992). 1994년부터 개인연금이 시판되고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이 전 국민대상으로 확대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이 비율은 많이 변화했으리라 예측되나 이에 대한 가용한 자료를 구하지 못하였다.

선진국에서는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3층 보장방법을 사용한다.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가입을 의무화하고 은퇴 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화된 방법이다. 기

업연금은 기업과 직원이 일정액을 적립하여 직원들에게 퇴직 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개인연금은 개인스스로 금융기관의 상품을 선택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대체로 공적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보장수단이며 기업연금은 이에 더하여 퇴직자들의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은퇴 후에 더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우리 나라에는 공적연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막 시작된 상태이므로 현재의 노인 중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우리 나라 직장근

표3. 노후생활 3층 보장 체계

자기보장	개인연금	여유 있는 생활
기업조장	기업퇴직금	표준적인 생활
국가보장	공적연금	기본적인 생활

무 종업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5.2년에 불과하여 퇴직금도 많지 않으므로 퇴직금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하다. 삼성생명(1996)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업퇴직금을 합하여도 퇴직 전 소득의 평균 52% 정도를 대체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이 비율이 60%, 미국에서는 64%, 일본에서는 70% 정도이다.

따라서 각 노인가정은 각종 연금 외에 가용한 자금의 액수와 종류를 따져보고 우선 자산 보유형태에 따른 안정적인 연간수입액을 예상해 보아야 한다.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저축이나 보험 등이 노후 생활자금의 주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달에 필요한 액수만큼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다음 절을 참고한다.

IV. 자산 운용전략

필요한 재무목표와 자금조달방안을 고려한 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운용목적에 맞

게 관리해야 한다. 효과적인 운용지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산을 배분한다.

현재의 자산상태표를 만들어보고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자산을 배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때 이자수입으로만 생활할 것인지 퇴직금의 일부로 다른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활비가 빠듯하고 별다른 부수입이 없으면 앞으로 철저한 절약생활을 체득해야 한다.

자녀들에게도 퇴직금이나 그 동안 모은 돈의 사용계획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녀에 대한 상속보다 먼저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해 두도록 한다.

2. 안전성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

고정적인 추가 근로소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금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원금을 잃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 준비해 온 노후자금을 일시에 날릴 수 있고 회복도 어렵다. 만일 수익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때라도 반드시 일정금액은 안전한 곳에 분산투자하는 원칙을 지킨다.

- 주식투자 같은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한다.
- 사금융을 피한다.
- 변동금리보다 확정금리 또는 실세연동형 금리를 선택한다.
- 은행 정기예금, CD, CP, 국공채

3. 유동성을 높인다.

노후에는 질병, 사고 등 예기치 않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재산이 있어도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없다면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되 최소한 3-6개월 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액수는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한다. 그러나 금리가 낮고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특별한 시기에는 여유가 있다면 금융자산 일변도의 투자도 적당하지 않다. 주거용 부동산은 생활의 기본적인 안정을 위해 필요하므로 유동성 관리와 별도로 그대로 보유하되 너무 큰 경우 크기를 조절한다.

- 부동산 투자보다 금융자산 투자비율을 높인다.

- 장기상품보다 단기상품을 활용한다.
- 항상 중도해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수료를 확인한다.
- 은행의 MMDA, 투신사 MMF

4. 월이자지급식 상품을 이용한다.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목돈을 월이자지급식 상품에 예치하고 매달 이자를 타서 생활비에 보탠다. 여유가 있으면 매달 이자를 수령하지 않고 3개월 또는 6개월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을 선택한다.

- 은행의 적립식 목적신탁, 노후생활 연금신탁 등
- 안정적인 A급 회사채, 각종 정기예금, 투신사 공사채형 저축 등

5. 보험을 활용한다.

보험가입이 가능할 때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에 종신형으로 가입한다. 나이 들어 질병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의 진가를 알 수 있다.

- 개인연금보험, 각종 생명/건강 보험

6. 부채를 최소화한다.

부채는 시장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사거나 미래소득의 향상을 위해 써야 한다. 노인가정의 부채는 다른 어느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항목이다. 현금자산이 없으면 집크기를 줄여서라도 부채를 먼저 갚는다.

7. 절세상품을 활용한다.

비과세저축, 세금우대저축 외에도 퇴직금이나 노인고객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다. 이자소득세율이 총이자소득의 1/4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가정의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 목돈인 퇴직금을 운용하다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인 4천 만원을 넘을 수도 있으므로 거래 금융기관과 이자인출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V. 결론

노인가정은 계획적인 재무관리에 익숙하지 않고 또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노인들은 스스로의 노후를 경제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선진국의 노인들은 국가와 기업의 여러 연금을 합하여 최종급여의 50-75% 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가 발달한 스웨덴이나 영국 등에서는 연금제도 외에도 주거와 의료 등 생활의 기본적인 분야에서 무료로, 또는 매우 저렴하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공적연금 제도의 혜택이 일반화되기 전에 가족단위의 사적보장의 가치관이 먼저 희석되는 바람에 자신의 노후보다 자녀교육과 결혼에 먼저 투자해 온 노인세대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노인가정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금운용 방식을 제시하고 노인가정의 재무관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신문이나 인터넷에서의 재무관련 상담은 주로 20-30대 남자, 그리고 중간소득층 이상의 고객들을 위한 투자상담에 치우쳐 있다. 노인가정에 대해서는 아직 그들의 소득과 소비실태, 그리고 재무관리 실태 등도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를 위한 연구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연금관리공단(1998). 인터넷 자료

김은정(1992).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계획 수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노윤주, 이연숙(1997). 도시 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권 1호

삼성생명(1996). 가계재무설계 체험학습과정 자료

심영(1997). 노인의 의료비 지출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권 4호.

이기춘 외(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학지사

저축추진 중앙위원회(1996). 풍요로운 노후생활

조선일보(1996). 명예퇴직자 재테크 전략. 10월 10일자

지영숙(1998). 현대가족생활설계론. 학지사

통계청(1994). 도시가계연보

통계청(1996). 도시가구 소비실태조사 인터넷 보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노인생활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